

다산포럼

도도한 시대적 흐름



김세종 다산연구소장

우리는 정보-지식을 자본으로 한 3차 산업시대를 넘어 4차 산업시대를 맞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정보와 지식 산업의 진전과 변화는 가히 혁명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 하여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기존의 한계를 초월하는 초고속, 초연결, 초경험, 초공유, 초모험 그리고 초지능 시대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파고들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풍요의 상징 쥐의 해를 맞는 각계각층의 일성(一聲)은 변화와 혁신이었다. 또한 쇄신과 개혁을 운운하며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문하고 있다. 이

는 시대 흐름에 맞게 조직이 움직이고 큰 텐트가 변화해야 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이전의 관공이나 제도·방식 등을 새롭게 뜯어고치자는 외침이요, 혁명시대를 도도히 맞이하지는 깨우침일 게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행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더딘 것 같다. 변화와 혁신시대를 맞는 사회 관계망에 새로운과 준비 과정이 실제 파부에와 닿지를 않기 때문일 것이다.

노자에 보면 '정치는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자정야(政者正也)라 했다. 따라서 옛 사람들에게 정치는 '낡은 제도를 쇄신하여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구습(舊習)에 물든 제도를 바로잡아 개혁하는 정사관 의식스러워하거나 어렵게 여길 일이 아니었다.' 해묵은 잘못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는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반명(盤銘)'에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日新又日新)는 잠언이 귀기미였는데, (大學) 말씀 씌어 때를 잃어듯이 마음의 때를 씻어 덕을 새롭게 향상시키는 것만이, 낡고 해묵은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일

키고 새로운 정치를 여는 개혁의 첫걸음으로 여겼다.

이런 일면에서, 조선 후기 조선의 개혁을 부르짖은 다산 역시 당시 사회를, "세상이 썩은 지 오래되어, 털갈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天下腐已久 一毛一髮 無非病耳 及今不改 必亡國)라고 진단하며,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한다'(新我之舊邦)는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는 오늘날 다산학의 면모와 그 가치를 평가받는 핵심적인 어구일 게다. 다산의 개혁은 즉 새로운 변화다. 시의(時宜)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낡은 조건을 새롭게 개혁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정신 개혁이다. 유교의 이상적 성리학에 빠져 있는 지식인들의 사고의 틀을 변화시키고 성경현전에 대한 6경 4서의 뜻을 새롭게 고증하여 실사구시적 경전 해석을 이끌었다. 둘째는 국가 개혁이다. '경세유표'와 '목민심서'를 통하여 당시의 법질서를 초월한 국가기구 전반에 걸친 개혁의 청사진을 '경세유표'에 담았다. 또한 '목민심서'는 법질서 안에서의 지방행정에 대한 개혁안이었다. 또한 가지는

'흙흙신서'인데, 이는 법질서를 통한 사림의 생명에 관한 개혁안이다. 셋째는 기술 개혁이며 이러한 다산의 개혁안은 제도 개혁에 집중된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의 맘출 몰랐던 개혁이 감복하여 송가(殫矜)소리 드높다.

개혁은 이루어기만 하면, 금난지고(金難之交)와 같다. 그러나 개혁은 예나 지금이나 녹록치 않은 일이다. 개혁에는 심한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해묵은 폐단과 잘못을 개혁하여, 국민의 삶을 좋게 만드는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일인데도, 사람과 사람 및 집단과 집단 간의 조화로운 의견을 모아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것은 단단한 가죽 뒤집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개혁은 진실로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일'(難中難之難)이지만, 시대에 부흥하는 변화와 개혁은 단단하기가 황금(黃金)과 같고 아름답기가 난초향기와 같아, 서로 마음이 맞고 교분이 두터워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말하면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고 한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역경-계사상전)

社說

여수 'LNG 동북아 터미널' 착공 지연 없도록

여수 묘도에 대규모 LNG(액화천연가스) 탱크와 항만을 조성해 중국·일본 등과의 무역 거점으로 삼으려는 '전남 LNG 동북아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해, 오는 4월로 예정된 착공식이 자칫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주)한양은 지난해 말 산업부에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공사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최근 관련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주)한양은 터미널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송출 가능 물량을 연간 100만 톤으로 추정했지만, 가스공사 측은 60만 톤만 가능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민간 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배관망 공동 이용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주)한양은

이미 다수의 발전 자회사 및 해외 LNG사업자와 터미널 이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양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묘도의 준설도 매립장 87만 4000㎡에 오는 2026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해 20만㎥짜리 LNG 탱크 13기와 가화설비, 항만, 연료전지 발전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LNG의 안정적인 확보로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물론 인프라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남도가 추진하는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터미널 착공 일정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사 계획의 조기 승인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스 배관망 이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도 서둘러야 한다.

설 명절 제수용품 값싼 전통시장 이용을

민족의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24.7%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7일부터 4일간 전통시장 37곳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비교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2만5천680원, 대형마트가 29만9천669원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만3천989원(24.7%) 저렴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채소(53.5%), 수산물(27.1%), 육류(25.8%)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 우위를 보였다. 특히 고사리(69.9%), 간도라지(66.9%), 숙주(46.5%), 대추(42.2%), 유과(41.9%) 등이 저렴했다. 아울러 지난해 설 제수용품 가격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0.2% 상승했고, 대형마

트는 8.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설이 예년보다 빠르게 1월에 들어 아직까지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 별령해서 상인은 상인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 대목은 잊은 지 오래됐다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올해는 경기가 더욱 어려워 장사가 안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벌써부터 한숨을 짓는다.

매년 명절 때면 전통시장을 이용자는 캠페인이 봇물을 이루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만큼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발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구매 등의 편리함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자금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다.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볼으로써 가계 부담도 덜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기고

착한 여론조사

기도 탈락시키기도 하게 된 것이다.



조지현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또다시 여론 조사의 계절도 돌아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여론조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였다.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 국민투표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선거 운동 기간에 정당 및 언론사를 비롯하여 사학단체 및 학계에 이르기까지 여론 조사를 시도하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현재처럼 후보 지지도나 당선 예측 기사를 내보냈고 정당에서는 선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선거 전략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보간 이합집산과 합중연형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국민 경선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론조사가 대통령을 당선시키

기대 탈락시키기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각 당에서는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공천 틀을 발표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역시 국민 경선 방식을 도입해 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이루어진 심사단의 온라인 투표와 공론조사 방식인 200~300명 규모의 속의 심사단의 합숙 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선거 여론조사는 활용 정도와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지만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론조사의 기법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조사인데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볼 때는 '과학적인 여론조사'라고 하고 반대로 불리한 결과를 볼 때는 '숫자 놀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조사 방법, 표본 추출 방법, 질문지의 내용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착한 여론조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착한 여론조사란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질문을 묻고 과학

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조사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은 특정 성별, 특정 연령,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표본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맞도록 목표 할당 수를 정한 후 조사를 실시하는데 보통 젊은층은 이 할당수를 채우지 못하고 장년층 이상은 할당수보다 더 많은 수를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원래 모집단의 비율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작년 8월에 개정된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가중값 배율이 0.7~1.5를 넘는 경우에는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표본 추출 틀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객관적인 질문이란 질문 문항의 내용이나 보기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사 하나만 달라져도 질문의 의미가 확 바뀔 수 있다. 응답자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지도도'를 묻느냐, 후보자로 누가 적합한지 '적합도'를 묻는 경우에 따라 응답은 달라지게 된다. 보기 역시 '예/아니오'의 이분형으로 묻는 경우와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정도로 묻는 경우에 따라, 중간 범주인 '보통이다'가 제시되는 지 여

부에 따라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란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 조사 진행 방식,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즉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맞게 조사를 진행하면 과학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되어 선거 여론조사 기준 공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착한 여론조사를 위해 조사 기관에서는 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언론에서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나 '여론조사 보도 지침'에 따라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응답자 역시 응답을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민심(民心)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청춘특특

인간이 만들어 낸 호주 최악의 산불



조서희 광주대 문예창작과 1학년

지구 반대편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바로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이다. 피해가 심각한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에서는 재난 상태를 알렸다. 산불로 인한 경보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불리는 '검은 토요일' 이후 약 10년 만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은 다섯 달 가까이 크고 작은 움직임을 보이더니 최근에서야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보다 넓은 10만 7000㎢의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다. 소방청은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건조와 가뭄이 전에 없던 규모의 산불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와 연기가 만들어내는 화재 적운(Pyrocumulus Cloud)은 번개를 만들어 또 다른 지역에 산불을 일으키고 있다. 소방청은 3000명의 인력을 투입했지만, 화재 진압은 힘들어 보인다. 대규모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태다.

피해 또한 극심하다. 28명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으며 가옥 1500채 이상이 불에 타거나 무너졌다. 호주의 12월 말~1월 초 날씨는 우리나라의 초여름에 해당한다.

하지만 산불로 인한 더위로 주요 도시는 섭씨 44도 이상의 불볕더위를 겪고 있다. 동불도 마찬가지다. 호주에 주로 서식하는 캥거루와 코알라, 주머니쥐 등 사망한 전체 야생 동물은 10억 마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서식지의 80%가 불에 탄 코알라는 기능적 멸종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기능적 멸종 단계란 일부 개체가 번식하더라도 전체 개체 수가 적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 장기적으로 종의 생존 가능성이 작아지는 단계를 의미한다. 호주의 다양한 구호단체는 동

물 구조에 힘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산불이란 것은 단순히 나무가 불에 타는 것만이다. 산불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는 멸종 위기 동식물을 위협하며 이산화탄소를 없애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정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이번 호주 산불로 지금까지 최소 4억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는데, 이는 호주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인 3억 4000만톤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자동차 1억대를 1년 동안 뒀을 때 나오는 양과 맞먹는다.

이번 호주와 같이 산불로 인한 불볕더위를 경험하게 되고, 인명 피해는 물론 집과 같은 재산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호주 옆 뉴질랜드는 미세먼지로 인해 노란 하늘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큰 규모의 자연재해가 최근 몇 년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은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몇 달 전,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건조한 기후 때문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한 산불들은 모두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다. 브라질은 아마존의 경제적 잠재력을 이끌겠다며, 보호 예산을 삭감하고 아마존을 발전시키겠다는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산불이 발생한 후, 여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절했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환경 오염이 산불이 발생하게 된 기후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조한 봄·가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최근 발생한 강릉 산불로 인해 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빈도와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일반인들은 플라스틱 재활용과 비닐 사용 자제를 통해 환경을 지켜야 하며, 기업과 정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환경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계적으로 재앙 수준의 피해를 불러오는 재해는 이제 흔분하다. 우리는 전에 있었던 재해들을 되돌아보며 더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써야 한다.

無等鼓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고 경미한 바람이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는 것'을 가리켜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라 한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 이론이다.

나비 효과는 과학 현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정치·경제 등 곳곳에 적용된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캘리포니아의 조그만 금융기관 파산에서 야기됐다는

다. 광화문 광장에서 커지기 시작한 촛불은 미약한 일렁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거대한 '촛불 혁명'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4·15 총선부터 투표권이 부여되는 18세 유권자들의 선택도 주목된다. 이들은 2002년 4월 16일만 전 출생자들이다. 2019년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의 규모는 53만 2295명(통계청 기준)이다. 정치권에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53만 명이 현재 전국 수도사라예보를 찾아오는 수는 2100명 전체의 황태자 부부에게 18세 청년이 총격을 가한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1914-1918)이 시작된 것도 나비 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부른 '최순실 게이트' 역시 단순한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단초가 됐다. 여기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과 최씨 딸의 부정 입학,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입급 시간 행정 등이 일파만파로 번졌

나비 효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